

<서평>

‘굴레’, 누가 누구에게 씌우고 있는지  
-태국의 여성작가 안찬\*의 단편소설 <굴레>를 읽고-

임 명 숙\*\*

눈을 뜨면 어제와 또다른 영상매체의 빠른 변화, 무한경쟁 등의 단어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하루를 파시스트 속도로 무섭게 질주하는 현대인들. 내가 아닌 타인에게 떠밀려가듯 살아내기를 해야만 할 때, 아주 가끔은 느슨하게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학이라는 활자매체가 아닌가 싶다. 캐나다의 문화인류학자인 마샬 맥루언이 1964년에 활자매체의 죽음을 이미 예언했지만 영상매체에 짓눌려 움짱달짝 못한 채 잘 읽혀지지 않을 것 같은 활자매체가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시대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학은 참으로 매혹적인 예술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면 문학의 그 매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꽤 잘 만들어진 영화 못지않게

---

\* 1952년생인 안찬은 필명이고, 안차리위왓타차이가 본명이다. 안찬은 태국의 최고 명문고등학교인 방콕의 프리암우동쑈사 고등학교와 쫄라롱껀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City University of NewYork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안찬은 1985년 최우수 단편에 선정된 단편소설 <매크랍(어머니)>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 이후 거의 매년 한 권 이상의 단편, 수필 등을 발표하고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성작가이다.

\*\* 서울교육대학교

잘 쓰여진 한 편의 소설이나 단 한 줄의 시 구절이 때론 우리를 잔뜩 묶어 놓았다가 맘껏 풀어 놓아주는 묘한 힘을 지닌다. 문학 자체가 언어의 배일, 즉 은유로 감싼 삶이라는 그것이 허구이든 리얼리티이든 상관없이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되는 공간이고, 풍요한 분석이나 해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태국의 현대문학 가운데 단편소설인 <굴레><sup>1)</sup>는 여성작가 안찬이 1988년에 발표하였고, 그해 ‘칼라도’가 선정한 최우수 작품이다. 발표된 지 비교적 시간이 흐른 이 작품은 제목에서 웬지 페미니즘적 냄새가 난다. <굴레>는 한 중년부부의 일상적인 삶의 단면을- 단면 이라지만 전부일수도 있는- 담아낸 소설이다. 소설인데 마치 한 편의 수필처럼 읽혀지고, 혹은 하루 동안의 일기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플롯 역시 복잡하지가 않다. 이렇다 할 클라이막스도 보이지 않는다. 압축된 내적서술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 작품이다. 매우 간결한 문체와 전형적인 리얼리즘 문학에서 즐겨 쓰는 3인칭 단편소설로 어떠한 계몽성이라든지 소설적 기교조차 없고, 박진감이나 속도감도 없어 저자가 신처럼 독자를 이끌고 가지도 않는다. 스토리텔링 자체를 마냥 독자들에게 작가는 내어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편은 인간이 덧쓰고 사는 ‘굴레’에 대하여 남성/ 여성이라는 성 대립구조나 민족·국가·시대 등을 초월해 한번쯤은 ‘나’를 돌이켜 보게 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곧 작품이 지닌 매혹성이 되는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굴레>는 표층구조만 읽어내면 읽는 내내 남성중심담론에서 주변부의 여성으로 살아내기해야만 하는, 즉 남성의 다양한 폭력성이 여성의 질곡이 되어 ‘여성의 굴레’로 씌워져 여성독자로 하여금 순간적이거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여성(‘그녀’-아내)이 가부장제하(‘남편’)에 예속된 채 움짱달짝 못하는, 그래서 남편에게 종속되어

1) 안찬, <굴레>, 김영애 옮김, 도서출판 창, 1991.

수동적인 아내의 일상을 마치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를 찍어내듯 허구가 개입되지 않고 매우 사실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어떠한 분석이나 해석이 필요 없어 마치 한 편의 페미니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을 ‘re-vision(다시 읽기)’ 하였을 때, 과연 이 끔찍스러운 ‘굴레’를 ‘누가 누구에게 씌우고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작품의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관점이 페미니즘 시각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독자는 다시점적, 다각도에서 읽어냄으로써 에너지 상태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굴레>를 찬찬히 다시-읽기를 하면 ‘굴레’는 가부장적인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남편’) 스스로가 자신에게 ‘굴레’를 씌워놓은 줄도 모르는 아브젝트가 숨겨져 있다. 인간이 어떠한 양상으로도 자신만의 ‘굴레’를 스스로 둘러 쓴 채 타자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한 측면이다. 이때 독자는 지독한 패러독스의 맛을 보게 된다. 독자로 하여금 젠더 공간에서 허우적대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이 지닌 힘이고, 허구성인 소설의 특성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곧 진실화된 허구 혹은 허구화된 진실성이다

월요일 아침에 예전과 같이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중략. /그녀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 애들이나 남편도 아직 안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계란반숙을 하고, 애들이 마실 음료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입고 갈 옷을 다 린질하여 걸어 놓았다.

TV 앞에 놓여있는 기다란 안락의자에 누워있던 남편이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듣자 그녀는 열린 하던 일손을 놓았다. /지금은 뉴스시간이고, 남편이 정치평론을 즐기는 시간인 것이다. /그녀는 발

소리를 죽이며 조용조용히 걸어 들어와 남편 옆에 앉아 신문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관심을 들만한 기사를 찾았다.

서술된 것처럼 ‘그녀’는 남성지배담론(‘남편’)이 지극히 원하는 여성상, 즉 바로 삼중지도, 현모양처처럼 그려진다. 아내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오직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든 태국이든 가부장제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남성지배담론이 만들어낸 여성상이다. 이들 부부에게는 의사소통은 단절된 상태이며, 단지 아내는 남편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는 ‘허여성(許與性)’만을 보이는 순종적인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내의 삶 자체가 가부장제가 두텁게 쳐 놓은 ‘굴레’를 쓰게 되는 한 측면일 수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술도 역시 그녀의 부주의로 인해 시커멓게 타버렸던 것이다. /남편이 새 술을 사다가 주었다. /새 술이 바로 이 술이다. 술을 사다 주면서 남편은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마치 폭풍우가 쳐오는 듯이 크게 그녀를 야단쳤다. /그녀는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얼굴은 창백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듯 했다....중략..."애들아 아빠가 밥술에 대해 물으시면 옆집에서 빌려갔다고 말씀드려라.

아내의 언어 자체가 억지스러울 정도로 남성지배담론이 억압한 어둠이요, 모순으로 잔뜩 둘러쳐진 굴레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는 중심부 인물이며, 가부장제의 주체가 되고 아내는 중심부에서 밀려난 타자이다. 경제권까지 쥐고 있는 남편이 휘두르는 권력은 아내를 거짓말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 거짓이 실제로 탈바꿈되어 걸으려는 평온한 결혼생활이 유지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진실이 개입될 수 없어 텅 빈 언어만 부표처럼 떠있을 뿐이다. 거짓말은 진실 아래로 계속해서 미끄러져 아내의 모든 언어는 알맹이가 빠져

버린 상태, 곧 껍질이다. 마치 입센의 <인형의 집>에 갇혀 인형처럼 살아가는 ‘노라’처럼 아내는 남편이 씌워 놓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아내의 이러한 굴레는 표층일 뿐이다. 아내에게 있어 삶 자체는 늘 거짓으로 치장되었기에 육체성마저 가면(“거짓말”)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부생활의 친밀성, 즉 섹슈얼리티가 거짓이 된 채 진실 아래로 숨겨져 기표 아래로 무수히 미끄러진다.

남편은 늘 하던대로 그녀의 귓바퀴를 애무하며 (“다시 한 번 술을 태우면 발가벗겨서 밖으로 내쫓을 거야” 라고) 소근대듯이 말했다. /그녀가 자기의 뜻대로 다시 한번 더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남편의 소망과 달리 굳어졌다. 그러나 그의 몸 속에서 끓이지 않고 용솨음쳐 오르는 욕정은 이미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급히 그녀의 몸 속에 다 일을 끝냈다.

신비스럽고 친밀해야 할 성은 아내에겐 혐오스럽고 경멸감으로 굳어진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진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욕망만 충족시킨다. 표층으로는 경제권과 함께 아내의 육체성은 남편의 전유물이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에 남성의 일방적인 상태, 즉 여성의 진정한 마음이 없는 섹슈얼리티는 부부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거리두기에서는 결코 주이쌍스가 있을 수 없다. 굳이 자크 라캉식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결코 ‘성 관계’가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남편의 욕구 자체는 텅빈 베일이다. 이를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모든 권력은 허상으로 작용하여 그저 텅빈 충만이다. 이 텅빈 충만은 허구성이다. 이 허구성이 곧 ‘아내의 굴레’가 탈바꿈되어 남편 스스로가 자신에게 씌워놓은 ‘남편의 굴레’로 되돌아가는 아브젝트의 순간이다.

<굴레>의 작가 안찬의 약력만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작품을 왜 썼을까라는 의구점을 갖게 한다. 안찬은 태국의 엘리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도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이다. 그저 남성의 타자로 종속되어 억압받는 여성상을 단순히 담아냈다고 읽어낸다면 여성 독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씩씩하게 느껴진다.<sup>2)</sup> 독자에게는 문학의 무기인 은유로 뽕뽕 묶여진 언어의 베일을 벗기고, 기표 아래로 끈임없이 미끄러지는 수많은 기의 가운데 단 한 개라도 발견하는 그 순간의 쾌감과 동시에 의무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활자매체를 밀어내고 영상매체에 더 익숙해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문학이 주는 시원의 울림이 아닌가 싶다. 비교적 호흡이 짧으며 지나친 긴장성마저 드러내지 않고 단지 부부의 일상적인 짧은 스토리텔링만을 보여주는 작품 <굴레>는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 새소리를 듣는 것”으로 엔딩 처리가 된다. 이처럼 이렇다할 반전도 없이 끝나는 이 작품이 미학적 완결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왜일까. 이는 인간들의 모순되고 일그러진 삶이 그 진실을 외면한 채 내달릴 때, 언어의 예술인 문학자체가 그 찌그러진 일상의 한 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거짓되고 왜곡된 틈이나 이면, 행간 등을 뚫고 솟구치는 진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래서 인간 보편의 감흥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굴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엮매임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크거나 작고, 또 가볍거나 무겁게 다양한 모양새로 한 두개 짬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것

2) 필자가 문예창작과에서 비교문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안찬의 <굴레>와 한국의 단편소설,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를 과제로 내 주었을 때 학생들의 비평 반응은 한결같이 ‘아내의 굴레’, 즉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만 읽어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가슴이 서늘했었다. 이 작품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뛰어 넘어서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다시 읽기를 한다면 좀 더 작품의 가치를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평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을 과연 누가 누구에게 씌우는 것인가. 가부장제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씌웠다고 여성들은 주장하고, 반대 편에서는 남성은 여성에게 억눌려 오히려 설 자리마저 잃게 되었다고 소위 ‘여성학’ 곁에 ‘남성학’이 강좌로 자리잡는 요즈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닦할 필요가 있을까. 젠더 공간을 떠나 인간은 저마다의 굴레를 스스로 덧씌워 놓고 그것을 응시할 시간조차 없이 급히 바쁘게만 살아내기 하기에 상흔은 더욱 깊게 파놓은 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타자에게 씌웠던 굴레가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굴레>가 마치 거울에 비추어진 실체가 허상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거울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해주기에 오인된 주체, 결핍된 주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꽤 괜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 3세계나 동아시아 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좋은 작품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이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도 영어권만이 아닌,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되기를 소망해 본다. 언젠가 ‘한국문학의 세계화’, ‘세계문학의 한국화’라는 보편성이 진정한 예술혼의 등불로서 노벨문학수상자도 서구의 것만이 아닌,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많이 양상되기를 국문학전공자의 한 사람으로 바람을 갖는다.